투데이 칼럼

장수 주논개를 생각하며

김양옥
장수군 천천면 향우회장

내 나이 회갑이 지난 오늘 생각하니 장수 산촌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오늘날 장수는 농가소득도 최고인데, 청정 자연환경과 공기 좋고 각종 특용작물, 특히 사과와 한우의 명품 고장이 되었다.

사실 청소년기에는 먹고 살기도 힘든 빈농에서 태어난 원망도 많이 했다. 가난과 싸우며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을 죄 없는 고마우신 부모와 지역 환경에 원망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있었기에 어릴때 부터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신념은 더욱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내 고향은 훌륭하신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수많은 교육자인 선배님들이 많은데 의암 주논개를 소개 하고자 한다.

주논개는 1574년(선조7년)9월3일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 마을에서 훈장 주달문과 밀양박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부친 사망 후 모녀는 숙부 주달무 집에서 의탁하다가 그 후 장수현감 최경희를 따라갔고 논개는 최경희가 사도시정으로 갈 때 수행부실이 되었다.

이후 선조 26년(1596년6월29일) 진주성이 함락되고 평생을 함께 하려던 남편 최경희 마저 선조가 있는 한양을 향해 세 번 절하고 남강에 투신 자결 하였다. 그러자 주논개는 슬픔과 외로움으로 날을 세우다 왜병들이 7월7일을 기해 촉석루에서 승전 잔치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기생으로 가장하여 잔치에 참석해 왜장 '계야무라'를 의암으로 유인해 그의 허리를 껴안고 남강으로 몸을 던졌던 것이다.

그때 나이 19세로 나라를 위해 몸 받친 충렬의 여신이 되었다.

주논개 생가는 1986년 대곡제 축조로 수몰되어 오른쪽 산기슭에 복원 하였다가 2차 복원된 현 위치에 있는데, 이곳은 주논개 할아버지가 처음 장수로 와서 서당을 차렸던 곳으로 1997년부터 4년간 걸쳐 2만평 부지에 논개 생가지를 조성하여 관광, 농촌체험 접목으로 전통 민속 마을로 재탄생 되었다.

주논개 탄생 마을 주촌 마을은 대곡리 국도를 따라 올라가면 산골에 40호 정도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이 한국 여성의 귀감이 되고 있는 의암 주논개 태생지인 주촌 마을이다.

지금도 초가와 물레방아, 디딤방아등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를 간직하고 논개 기념관, 전시체험, 김장체험, 이엉얹기, 고구마캐기등 민속생활도 체험한다. 마을에선 산유화, 국화네, 흙가비네, 복지관, 전통주막집, 굴피와 죽데기로 만든 전통가옥의 숙박 시설 등으로 손님을 맞으며 콩, 청국장, 순두부, 오미자, 도토리묵 등으로 농특산품이 유명하다. 또한 장수근 장수읍 논개 사당 길을 가다 보면 주논개를 기리는 논개사당을 볼 수 있다. 이곳은 임진왜란때 순국한 주논개의 초상화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장수현감 정주석이 주논개의 충절을 선양하고 장수 태생을 기리기 위해 1846년 '논개 생장향수비'를 세운 후 주민들의 성금으로 지금의 남산에 사당을 건립하여 1974년에 현 위치로 옮겨 졌다고 한다.

경내는 생장 향수비명과 기념관, 외삼문, 내삼문, 충의문, 영정각이 차례로 있다.

이곳에서는 매년 9월3일을 기념해 제례를 지내며 각종 문화 행사를 통해 군민이 화합하는 장을 마련한다.

필자는 과거에 논개 뽑기 미인대회에서 심사를 몇 차례 보면서 생각한 것들도 많았고 자부심을 가졌었다.

도민 및 국민 모두가 일상을 떠나 여행 하고 싶고 가볍게 머리 휴식을 하고 싶다면 태고적신비를 간직한 깨끗하고 공기 좋은 자연과 충절의 논개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내 고향 장수를 다녀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개 하였다.

이제 필자도 고향 떠나 살아 온지 45년이 되었지만 지금은 장수를 사랑하고 장수에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 나를 행복하고 살맛나게 한 고향에서 살고 싶다.

사 설

전북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1조 원

전북 지역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이 연 1조원이라는 보고이다. 이같은 보고는 어느 한 두 사람의 측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도로교통 공단이 '2014년도 도로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자료에 근거해 내놓은 것이다. 그때 당시 전북의 예산이 5조원이 채 안 될 때이니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다. 보고에 따르면 그 당시 예산의 19%에 달하는 것이다. 지난해 2015년도의 교통 사고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추후 보고가 나올 터이다. 그래도 지난해 역시나 교통 사고의 사회적 비용이 엄청났을 거라는 짐작이다.

도내 교통 사고의 사회적 비용이 그처럼 많은 것에 대해 다들 생각하는 바가 깊어야겠다. 그래서 예전에 누누히 말해던 바 교통 안전과 관련해 짚어볼 것이 있다. 교통 법규 실천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미덕이다. 예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거니와 어느 구간은 러시아워 때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그에 더하여 작은 접촉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몇몇 조급증을 일으키는 자들 탓이 크다. 교통 법규 이행은 어느 한 두 사람만 지켜서 될 문제가 아니다. 모두들 교통 불편 해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이 말해주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래야 한다.

모든 교통사고에는 교훈이 있기 마련이다. 자신과 무관하다고 여기는 것은 시민 정신의 발로가 아니다. 무관심은 온갖 사고를 부르는 원인이 된다. 운전자의 부주의와 전방 주시 태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걸 등한시해서 교통 약자인 보행자들이 사고를 당하고 있는데 곤란한 노릇이다. 그리고 안전벨트 착용 문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는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이들도 안전벨트를 매는 게 의무화 됐는데 과연 그것을 실천하는 이들이 얼마나 되는 지 궁금하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때와 착용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매우 크다. 다들 그에 대한 각성이 이어야겠다. 지난해 도내 안전 벨트 착용률이 전국 꼴찌였기에 하는 말이다.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제 그같이 부끄러운 구설은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안전벨트 착용은 습관화 돼야만 한다. 그리고 예전에 여러번 말했던 것인데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당부해야겠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면밀히 조사해 시정할 것은 속히 시정해 달라는 것이다. 사고 현장에는 도로의 결함과 함께 안전시설의 부족이 발견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활약에 기대를

중소 영세 상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시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는 민선6기 제3차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가 전주 한국전통문화의 전당에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는 김승수 전주 시장과 대도시시장 협의회 회장으로 있는 이석우 남양주 시장 등 전국의 13개 대도시의 단체장들과 고위 관계자들이 모였다. 모임의 목적은 지역의 상권과 유통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역 상권의 침체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터라 중소 영세 상가들은 보통 이상의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시장 협의회 관계자들이 지역 상권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방안을 이야기했으니 앞으로 어떤 실효를 거두게 될지 그 활약에 기대가 크다. 그리고 상점가 등록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관내 특화거리들이 상점가 등록이 가능할 거라는 소식이다. 도내 재래 시장은 개선돼야 할 게 많다. 산뜻한 모습을 보여줘야겠는데 그 바람이 그저 바람에 그치고 있으니 답답하다. 재래시장이 점점 쇠퇴하고 있는데는 그 이유가 적지 않다. 더 개선돼야 할 부면이 많다는 게 일반 시민들의 중론이다. 전북 지역의 재래시장들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얼핏 생각해 재래시장의 쇠퇴가 전국적인 현상이지 싶었는데 그게 아니다. 인천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경남과 강원 쪽은 오히려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보고이다.

개선 작업이라는 게 점포 단장에만 치중했을 뿐, 더 중요한 공공시설 개선에는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은 지금도 유효하다. 거액을 들였음에도 대형마트처럼 활발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음은 답답한 일이다. 재래시장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접근성이 용이하게 주차장을 더 넓게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문화공간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지금 재래시장은 혁신이 필요하다. 대형 마트와 비교해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지금, 시장 상인들은 상권 회복을 위해서 발상을 전환해야만 한다.

독자제언

새학기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예방하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화 제도가 지난해 1월29일 시행된지1년이 경과됐다.

정부에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나 지난해 전체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51건중 사망사고 3건을 비롯해 총10건이 3월에 집중 발생한바 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개학철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한 법규위반 집중단속을 지난 2월1일부터 3월 말까지 실시 하고 있다.

그러나 집중 단속 첫 날인 1일 저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9살 초등학교 학생이 태권도학원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어린이의 특성으로는 몸이 작아 잘 보이지 않고, 예측이 어렵고 뛰어다는 경향이 있으며, 작은 충격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수 있으니 우리 어른들은 이것만은 꼭 지켜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하여 더 안전한 통학길 조성에 만전을 기했으면 한다.

학부모는 배웅하고 마중할 때 안전벨트 매기 등 안전 사항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어린이가 도로를 건널 때 차가 오는 방향을 보고 뛰지않고 천천히 걸어가도록 반복해서 알려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통학차량 운전자는 모든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었는지를 확인후 출발하고, 내릴 때 아이가 안전한 장소(보도등)에 도착한 것을 확인후 출발하고, 보조자가 없을 때 에는 직접 내려 안전하게 승. 하차하는 것을 도와줘 보호자에게 정확히 인계해야 한다.

동승 보호자는 어린이가 승차하면 즉시 안전띠를 매어주고,운행중 안전띠 착용여부를 반복 확인해야 하며,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후 안전띠를 풀어주고, 차에서 내려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하는 것을 확인후 보호자에게 정확히 인계해 줘야 한다.

배봉규완산서 서학파출소 팀장

독자제언

술 덜 깬 상태 아침 운전 삼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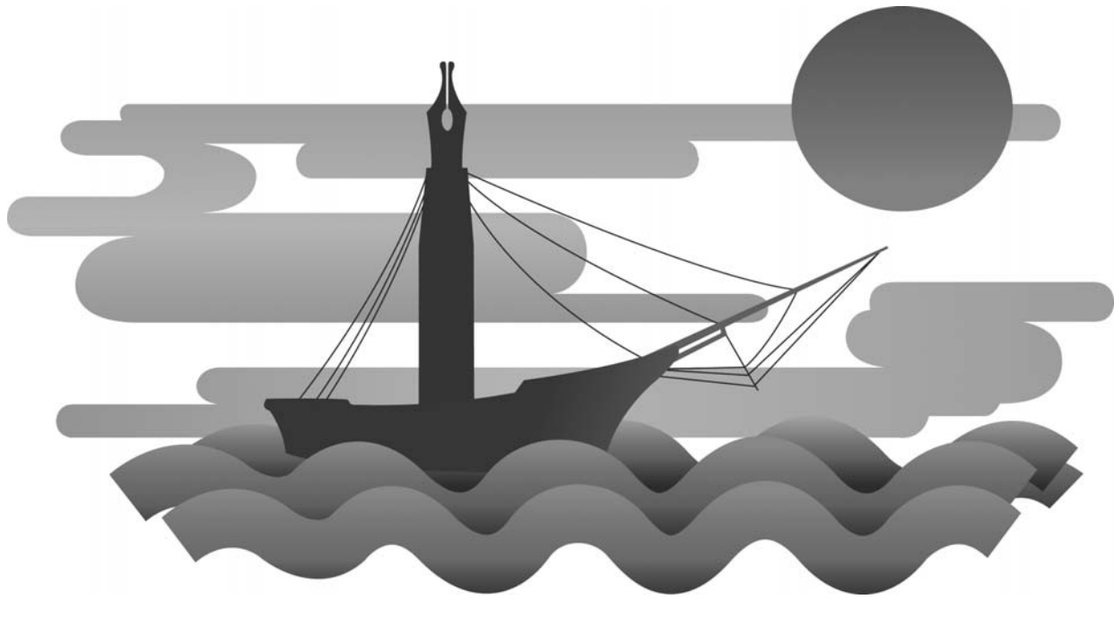
우리는 통상 술을 마신 후에 운전하는 것만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날 늦게까지 마신 술이 잠을 잤다고 해도 아침까지 숙취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밤사이 수면을 취하면 다음날은 술이 깼을거라 생각하고 특별한 위험의식 없이 아침에 운전대를 잡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체중이 70㎏인 사람이 소주 2병을 전날 자정까지 마시고 오전 7시에 운전을 한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4%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는 것이다. 혈중알코올이 체내에 남아 있으면 평균적으로 시간당 0.015%씩 알코올이 분해된다고 가정했을 때 알코올이 완전 분해되는 시간은 그날 저녁 6시가 되어야 한다. 즉 술을 마신지 19시간이 지난 후가 되는 것이다. 소주 1병을 마셨다면 최소 6시간에서 최대 10시간 지나야 알코올이 분해된다. 밤에 수면을 했다는 이유로 술이 깼다고 생각한 채 출근길 운전을 하는 것은 만취운전에 해당한다.

교통이 번잡한 출근시간 대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뒤따르는 범법행위임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전날 과음으로 인해 아침까지 숙취가 남아있다면 직접 차량을 운전하기 보다는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숙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차지성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순경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